글로벌프런티어연구단 –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업무협약 체결 (20160529)

- 목차 -

1	미래부,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EBN, 20160529]
2	글로벌프런티어연구단-이스라엘 요즈마그룹 업무[뉴시스, 20160529]
3	요즈마그룹과 손잡고 '글로벌프런티어' 성과 세계로 나간다[디지털타임스, 20160529]
4	미래부·요즈마그룹,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브릿지경제, 20160529]
5	미래부,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 파트너십 체결[아시아경제, 20160529]
6	미래부,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손잡고 원천기술 사업화[아이티투데이, 20160529]
7	미래부·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맞손 [아주경제, 20160529]
8	미래부 요즈마그룹 업무협약[이데일리, 20160529]

미래부,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 2016-05-29 12:43

▲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강윤석(요즈마벤처스 대표이사), 이갈 에를리히(요즈마그룹 회장), 박재문(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최만수(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단장), 김성훈(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단장), 유범재(인체감응 실감교류 솔루션연구단 단장)ⓒ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10개 연구단은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요즈마 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 및 글로벌프런티어 10개 연구단 단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 서명식과 연구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세부협력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요즈마그룹은 2014년 아시아지역에 최초로 한국 법인을 설립해 국내 신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및 융합기술 등에 투자경험이 많다.

향후 요즈마그룹은 연구단이 설립한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창업 자금 투자, 해외 투자기관과 공동 투자 유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시장 및 기업수요 분석, 창업 방

향 설정,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여러 연구단이 기술사업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의 MOU체결은 연구단의 목표달성 및 성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1990년대 G7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프런티어를 잇는 대표적 대형 국가R&D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연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현재 총 10개 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창업 17건,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110억원, 투자유치 141억원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인쇄하기 | 닫기

글로벌프런티어연구단-이스라엘 요즈마그룹 업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글로벌프런티어연구단-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강윤석 요즈마벤처스 대표이사,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 최만수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단장, 김성훈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단장, 유범재 인체감응 실감교류 솔루션연구단 단장. 2016.05.29.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photo@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 [2016-05-29 09:21:46]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디지털타임스 뉴스인쇄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2902109976788001

요즈마그룹과 손잡고 `글로벌프론티어` 성과 세계로 나간다

남도영 기자 namdo0@dt.co.kr | 입력: 2016-05-29 13:10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10개 연구단이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1990년대 'G7 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프론티어'를 잇는 대표적 대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연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현재 총 10개 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창업 17건,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110억원, 투자유치 141억원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암 전이를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과 미생물을 이용한 가솔린 생산 기술, 세계 최고 효율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반영구적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등 바이오(BT)와 정보통신(IT), 나노(NT), 에너지(ET)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은 요즈마 그룹의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과 글로벌 진출 등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요즈마 그룹은 연구단이 설립한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창업 자금 투자, 해외 투자기관과 공동 투자 유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시장 및 기업수요 분석, 창업 방향 설정,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여러 연구단이 기술사업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의 MOU체결은 연구단의 목표달성과 성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력시간: 2016-05-30 09:25:29

미래부·요즈마그룹,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해외사장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민경인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6-05-29 12:43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 10개 연구단이 지난 27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 글로벌프런티어 연구단은 요즈마그룹의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 및 글로벌 진출 등 성과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편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1990년대 G7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프런티어를 잇는 대표적 대형 국가 R&D 사업으로, 현재 총 10개 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프린트 취소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일반] 미래부,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기사입력 2016.05.29 12:00 최종수정 2016.05.29 12:00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의 10개 연구단은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단은 요즈마그룹의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 및 글로벌 진출 등 성과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요즈마그룹은 연구단이 설립한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창업 자금 투자, 해외 투자기관과 공동 투자 유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시장 및 기업수요 분석, 창업 방향 설정,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여러 연구단이 기술사업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의 MOU체결은 연구단의 목표달성 및 성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1990년대 G7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프런티어를 잇는 대형 국가R&D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연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현재 총 10개 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미 창업 17건,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110억원, 투자유치 141억원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암전이 억제제 신약후보물질, 상지(어깨와 손목사이) 동작의도 패턴 인식 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세계 최초 가솔린 생산 기술, 세계 최고 효율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접는 스마트폰의 핵심소재, 반영구적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구현, 합성 조절 RNA를 이용한 세포공장 기술, 고용량·고출력·긴 수명을 갖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말(馬) 인프루엔자 H3N8 백신 항원 기술, 초고심도 이미징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체결 행사에는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요즈마 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 및 글로벌프런티어 10개 연구단 단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벤처 펀드인 요즈마그룹은 2014년 아시아지역에 최초로 한국 법인을 설립해 국내 신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미래부,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손잡고 원천기술 사업화

2016년 05월 29일 (일) 이경탁 기자 kt87@ittoday.co.kr

[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10개 연구단은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7일 개최된 체결 행사에는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요즈마 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 및 글로벌프런티어 10개 연구단 단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 서명식과 연구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세부협력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요즈마그룹은 2014년 아시아지역에 최초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신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및 융합기술 등에 투자경험이 많은 바 BT, IT, NT, ET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기술 기반의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프런티어 연구단은 요즈마그룹의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 및 글로벌 진출 등 성과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동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강윤석(요즈마벤처스 대표이사), 이갈 에를리히(요즈마그룹 회장), 박재문(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최만수(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단장), 김성훈(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 단장), 유범재(인체감응 실감교류 솔루션연구단 단장) <사진=미래부>

향후 요즈마그룹은 연구단이 설립한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창업 자금 투자, 해외 투자기관과 공동 투자 유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시장 및 기업수요 분석, 창업 방향 설정, 글로

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여러 연구단이 기술사업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의 MOU체결은 연구단의 목표달성 및 성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90년대 G7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프런티어를 잇는 대표적 대형 국가 R&D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연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현재 총 10개 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창업 17건,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110억원, 투자유치 141억원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아이티투데이(http://www.it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 닫 기

미래부·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해외사장 진출 활성화 맞손

신희강 기자 (kpen@ajunews.com) | 등록 : 2016-05-29 12:00 | 수정 : 2016-05-29 12:1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10개 연구단이 지난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체결식에는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요즈마 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 및 글로벌프런티어 10개 연구단 단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부 글로벌프런티어 연구단은 협약을 통해 요즈마그룹의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 창업 및 글로벌 진출 등 성과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요즈마그룹은 연구단이 설립한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창업 자금 투자, 해외 투자기관과 공동 투자 유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시장 및 기업수요 분석, 창업 방향 설정,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창업 인큐베이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의 MOU체결은 연구단의 목표달성 및 성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1990년대 G7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프런티어를 잇는 대표적 대형 국가R&D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10개 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창업 17건 및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110억원, 투자유치 141억원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포토] 미래부 요즈마그룹 업무협약

입력시간 | 2016.05.29 13:51 |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연구단은 27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강윤석(요즈마벤처스 대표이사), 이갈 에를리히(요즈마그룹 회장), 박재문(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최만수(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단장), 김성훈(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단장), 유범재(인체감응실감교류 솔루션연구단 단장) 미래부 제공.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